



지난 4월 30일(화), 갈릴리홀에서 소망부 봄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290여명이 참여하시어,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믿음의 유산(레거시: legacy)을 주제로 소망부 성도님들께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며, 특송에는 이상주 집사님, 김희연 집사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레크리에이션에는 김일호 집사님의 섬김으로 즐거움과 웃음의 넘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식사회에서 점심 식사를 섬겨 주심으로 소망부 성도님들이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전영재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노년과 삶(고후 4:16)"이라는 특강과 한규삼 담임목사님의 은혜로운 권면의 말씀으로 영적으로도 충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은혜의 시간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부 설립 50주년 2024년 소망부 봄 수련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그동안 주일 소망부 집회에 참석치 못하시던 스물 여덟분의 은퇴성도님들께서 처음 나오셔서 은혜받으시고 앞으로는 주일 소망부 집회에 꼭 참석하겠다고 다짐을 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 소망부 부장 오순도 장로

소망부를 세워주시고 봄 수련회도 열게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존귀 올려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뻐하심과 즐거워하심이 넘쳐났던 수련회였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들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 소망부 교사 성명선 권사



2024 소망부 봄 수련회는 저에게 배려와 겸손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특송찬양을 준비하며 반주로 연주하는 가운데, 가사를 들으며 함께 읊조리며 부르는 성도님들의 표정이 이토록 기쁠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기쁘고 복된 말씀을 모아서 다음세대에게 전승하고 계승하기를 원하는 우리 소망부 성도들의 심령에, 온유함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수련회를 위해 기꺼이 수고해주신 소망부 장로님, 교사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 소망부 반주자 이현숙 집사

